

박찬호, ML 아시아 투수 최다 124승

메이저리그 데뷔 17년만에... 노모 123승 넘어 최고투수 '우뚛'

‘코리안 특급’ 박찬호(37·피츠버그 파이 리츠)가 미국프로야구 아시아 투수 최다승 신기록을 달성했다.

박찬호는 지난 2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플로리다 말린스와 원정 경기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지난 2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로리다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3-1로 앞서던 5회말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3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솜아내며 무실점으로 막는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팀이 5-1로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된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을 수확하고 노모 히데오(일본·123승)를 뛰어넘어 아시아 투수 역대 최다승 선수가 됐다.

박찬호는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세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으로 잡고 꽤 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6회에도 삼진 1개 포함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한 박찬호는 7회 삼진 2개와 뜬공 1개로 마무리하며 통산 최다승의 밀거름을 놓았다.타자들도 6회 2점을 추가하며 박찬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박찬호는 2000년 한 시즌 개인 최다인 18승을 올리며 선발투수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다저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박찬호는 2002년 당시 거액인 5년간 6500만달러를 받고 자유계약선수(FA)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

했다. 그러나 허리 통증 등으로 부진하며 2005년 다시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됐다.

선발투수로 뛰던 박찬호는 2007년 마이너 리그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불펜 투수로 제2의 인생을 열었고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뉴욕 양키스, 피츠버그로 옮기면서 셋업맨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박찬호는 2007년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을 때 ‘123(승)’이라는 숫자만 바라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도로 아시아투수 최다승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선발투수로 113승을 거둔 박찬호는 구원투수로 11승을 올려 노모의 기록을 경신했다.

박찬호는 3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3승을 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승이라는 숫자 하나가 더 추가해 124승이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며 “124승의 의미는 조만간 퇴색할 것이지만 내가 던지는 여러 구질의 테크닉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대·기보배·김덕현·심단비·정다래 고향 명예 걸고 전국체전 뚫는다

6일 경남서 개막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가 오는 6일 경남에서 개막한다.

‘하나 되어 다시 뚫자’를 슬로건을 내

건 이번 체전은 경남 18개 시·군 63개 경기장에서 12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6일 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에서 2만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양궁월드컵 3관왕에 빛나는 기보배와 한국 육상의 자존심 박태경·김덕현, ‘마장미술의 달인’ 최준상, 클래식 사계의 간판 이보나 등을 앞세운 광주는 39개 종목에 123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10위권을 다투는 총부·대구·대전에 이어 14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핸드볼, 하키, 정구 등의 단체종목과 전력 강화 종목인 체조, 정구, 레슬링, 검도 등의 성적에 따라 13위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특급 좌완 유창식을 앞세워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한 광주일고 야구부도 고등부 대표로 순위 싸움에 힘을 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은 중위권 수상을 위해 44개 종목에 163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육상·수영 기록종목과 고등부 선수들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중위권 경쟁팀인 전북·대구와 한 자릿수 순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을 대표해 ‘금빛 윈크’ 배드민턴 이용대, 수영 국가대표 정다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U-17 여자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골키퍼 심단비와 수비수 백은미는 광양여고 유니폼을 입고 전남 대표로 그라운드에 오른다.

이번 체전은 오는 11월12일 개막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0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1월12일 개막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0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다.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돼 ‘문화체육’으로도 눈길을 끈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진주에서는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실크박람회와 펼쳐지고 남해에서는 이충무공 노랑해전승첩제가 열린다.

이외에도 하동 토지문화제, 산청 지리산문화제, 함양 물레방아골축제 등이 체전의 열기를 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롯데 ‘승부 원점’

두산 정수빈 9회 스리런 4차전 승리... 2승 2패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독심의 두산이 적지에서 거인을 무너뜨리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두산 베어스가 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9회초 터진 정수빈의 대타 스리런을 앞세워 11-4의 대승을 거뒀다.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하며 베팅에 몰렸던 두산은 2일 알폰스의 완벽 계투에 힘입어 6-5의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둔데 이어, 3일 홈런 하나를 포함해 16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기사화했다.

1회 찾았은 만루 찬스에서 선취점 뺏기에 실패한 두 팀은 8회까지 1점차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2회초 이원석의 적시타로 승기를 잡은 두산이 5회 2사 1·2루에서 나온 최준석의 안타로 2-0까지 앞서나갔다.

반면 1회 무사 만루의 기회를 무산시켰던 롯데는 잔루행진을 하며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대호의 볼넷으로 시작된 5회말 홍성흔·가르시아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롯데 공격이 뒤늦게 불을 뿜었다.

가르시아의 중전안타때 홈에 들어오던 이대호가 태그 아웃 됐지만 2사 2·3루에서 강민호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2-

2가 됐다.

환상적인 블로킹으로 홈에서 이대호를 잡아낸 두산 포수 용덕환은 이어진 타석에서 타점까지 기록하며 거인을 울렸다. 양의지와 교체투입됐던 용덕환은 6회초 좌전안타로 2루주자 임재철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3-2를 만들었다.

1점차의 팽팽한 승부는 ‘아기곰’ 정수빈의 한방으로 균형을 깨졌다.

9회초 두산이 이종욱의 2루타와 오재원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2루의 추가득점 기회를 잡았다. 김현수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김경문 감독이 4번 최준석 대신 투입했던 고영민을 다시 정수빈으로 교체했다.

2년차 정수빈은 스리런에서 임경완의 싱커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거인’을 부산 앞바다에 침몰시켰다. 두산은 기세를 몰아 9회에만 8점을 뽑아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9회말 롯데가 2점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한 롯데는 이날 포스트 시즌 팀 최다 잔루 신기록(17개) 불명예까지 안았다.

2승2패가 된 두산과 롯데는 5일 잠실구장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최후의 승부를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 여왕의 아이스 쇼

피겨 스케이트의 전설 김연아가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10 올댓 스케이트 LA’ 아이스 쇼에서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에 맞춰 우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디크리스토를 발위축결기 한판으로 제친 방귀만은 결승에서 부루노 멘돈카(브라질)를 발위축결기 절반승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조준호·방귀만 나란히 금

이탈리아 월드컵 유도대회

조준호(용인대)와 방귀만(국군체육부대)이 2010 이탈리아 월드컵 유도 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준호는 3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로마에서 치러진 대회 첫날 66kg 이하급 결승에서 피에르 투르트(프랑스)를 상대로 지도 2개를 빼앗아 우승했다.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한 조준호는 2회전에서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16강에 진출했고, 연이어 마르틴 이바노프(불가리아)와 세르지우 올레이니(포르투갈), 마신 쿠즈네프 소프(러시아)를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먼저 유효 1개를 얻어낸 조준호는 두트리트가 지도를 2개나 받으면서 우승의 기쁨을 맛했다.

73kg 이하급의 방귀만도 시원한 한판승 행진 속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1회전에서 만난 로만 무스토플로스(독일)를 안다리 걸기 한판으로 제친 방귀만은 16강전에서도 똑같은 기술로 페테르 웨링거(오스트리아)를 넘어뜨리고 순항했다.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디크리스토를 발위축결기 한판으로 제친 방귀만은 결승에서 부루노 멘돈카(브라질)를 발위축결기 절반승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60kg 이하급의 김원진(신철원고)은 결승에서 펠리페 키타다이(브라질)에 허벅다리 걸기 되치기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66kg 이하급으로 체급을 올려 출전한 ‘한판승 사나이’ 최민호(한국마사회)는 16강전에서 세르히 드레보브에 판정패를 당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남자 탁구 2년 연속 준우승

2010 월드컵 클래식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세계 정상급 8개국을 겨루는 2010 월드컵 클래식에서 만리장성에 막혀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일(한국 시간) 새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끝난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베테랑 오상은(KT&G)과 차체대 에이스 이정우(농심삼다수), 정영식(대우증권)을 내세웠지만 세계 최강 중국에 0-3으로 패했다.

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 상위팀 등 모두 8개국 참가해 총상금 28만9천달러를 놓고 토너먼트를 벌이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유럽의 강호 독일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지만 세계랭킹 1위 마롱과 왕하오(5위), 장지커(3위) 등 정예멤버가 총출동한 중국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